

전력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전기절약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자

절약이자 생산이고 애국이다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 일군들 파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절약은 골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전례로는 보려고 청진전기로 맞아 하며 경제 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둘째구를 열자면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전기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얼마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의 일군들과 전지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소장 리광문: 지금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전력이 생산되지만 그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따라 전기절약사업도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같은 예비로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지출비용에 비하여 같은 예비로기를 절약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실제로 1㎾의 전력발전능력을 조성하는데 드는 투자에 비해 같은 전기를 절약하는데 필요한 지출비용은 1/3 ~ 1/5밖에 드지 않는다고 한다. 하여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과학연구와 그 도입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실장 김원남: 전기예비로기 절약은 4 가지 부류로 갈라볼 수 있다. 우선 주어진 예비로기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생산공정에서의 절약,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송배전系에서 도중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절약 그리고 전력소비기준을 낮추는 방향에서의 절

약, 과학적인 전력관리체계를

받아들이며 전력소비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절기절약이다.

연구사 신명진: 이를 위해 발전기타이니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 기대 당 밀집능력을 높여 밀집소자가 소비전력을 줄 수 있는 밖은 전당이 열리고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대규모생산

공정들에 혼재적인 무효전력을 상장치들과 최신주파수변환장치들을 네리 받아들여 생산효율을 훨씬 높이면서도 노간 수억 kWh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실장 김원남: 과학적인 전력

관리체계를 실현하여 전력량비를 줄이고 전력생산과 소비에 대한 통일적인 실시간판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에서부터 지방의 모든 도, 시, 군들에 이르기까지의 전력손실을 줄이고 주파수변환기의 리용률을 비롯한 전력전자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며 각종 조명을 과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관리를 현대화하고 전력감독과 통제를 과학화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기자: 전력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 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둘째구를 열 때 대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각자 근로자들의 협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연구사 신명진: 중요단위들에 들어있는 면암기들에서의 전력손실을 줄이고 주파수변환기의 리용률을 비롯한 전력전자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전기절약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자: 전력발전능력을 조성하는데 드는 투자에 비해 같은 전기를 절약하는데 필요한 지출비용은 1/3 ~ 1/5밖에 드지 않는다고 한다. 하여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과학연구와 그 도입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실장 김원남: 전기예비로기 절약은 4 가지 부류로 갈라볼 수 있다. 우선 주어진 예비로기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생산공정에서의 절약,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송배전系에서 도중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절약 그리고 전력소비기준을 낮추는 방향에서의 절

약, 기초적인 전기절약이라는

관점에서 전기절약이라는

전기절약이다.

연구사 신명진: 이를 위해 발전기타이니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 기대 당 밀집능력을 높여 밀집소자가 소비전력을 줄 수 있는 밖은 전당이 열리고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

제철련합기업소의 요구에 맞게 전기절약과 그 효과적인 리용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장 리광문: 이미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신

들에 최대로 바짝 조이고 당

정책의 요구대로 전기절약을 보

다. 강화하여 위한 사업에 커다

란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

한 바탕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력부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투쟁

을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부하조절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여 국가전력계통의 주파수

가 몇 Hz만 떨어져도 적지 않은

전력도 중손실을 보게 된다.

전력을 보다 절약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여면서 실정에

맞게 신뢰들을 합리적으로 정리해나가야 한다.

총배전압을 높이기 위한 결

정적인 대책을 세우고 우리

의 힘과 기술로 가까운 시일안에

기본송전계통전압을 조고압계

통전압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는 전력 문제 해결이 경제

강국건설의 승리를 좌우하는 중

대한 경제적인 인력과 투쟁을

준기준에 맞게 전기절약과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허용

하면서 전기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실속있게 보다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정 순성

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오늘의 현실적 조건

은 물질적인 혁신과 혁신을 말

은 부문들을 비롯하여 인민경

제적의 의가 큰 중요공장, 기업

소를 그리고 주요건설장들에

전력을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단위들에 대한

교차생산조직표를 완성하고 그

를 업적과 수준화 위한 사업

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나라

의 전력생산량에 맞게 전력공업

상에서 선로를 확장하고 전력교

차를 기초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해당 부문, 해당 단위들에서는

자체의 생산특성을 고려하여 시

기별, 공정별, 기계설비별 교차

생산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무조

건 철저히 준수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는 것은 혁명의 요구, 당의

요구이며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경우에 대한 전력기지에서 내

세운 전투목표는 비상히 높다.

란팡에서 높은 생산실적의 기록

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면

밀집련합기업소부의 전투적인 작

전이 펼쳐지고 당, 행정일군들

이 참모부작전방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대상마다 위치를 차

지하였다.

이전시기에는 런합기업소일

군들이 란팡에서 내려와 석탄생

산일면에 주되는 힘을 넣었으면

지금은 생개 서한운반으로부터

화력발전소로 화차를 떠나보내는

경에 전력기지에서 일군들을 높

여기고 전력기지

상원로동계급의 투쟁성과에 호응하여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가자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일 불같은 열정

철도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물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적이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철도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세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달고 혈자의 정성운행을 보장하며 철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작전을 혁신적으로 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고 있다.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둘파한 상원의 영웅적로동계급의 투쟁본래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물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자!

철도수송은 넘려밀라.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면서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창업 진군길에 올린 첫 수소란의 장폐하 회성은 승리의 포성으로 이어강 불리는 충정과 애국열의가 이들의 가슴마다에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뼈에 새긴 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슬슬 철도운수발전에 전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로 정하고 전투목표를 과학적인 태산밑에 놓이 세웠다.

일군들은 새해 첫아침부터 달리는 기관차에 올려 수송전투를 치루하면서 회력발전소들과 금속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어

터부문에 필요한 물동을 제때에 원만히 실어내주기 위한 사업에 회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한 조직성, 규률성을 지닌 인민군대의 보법은 본받아 멀처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각지 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철도규정을 향해 펼쳐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의 편비리를 일으키는것과 함께 모범적인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로 일군들과 공장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예우를 더해 철도운행을 솔직하게 조직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제정된 철도운행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는 강한 혁명적 힘을 확립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종래전기기관차부문기술자를 찾으시며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신에 이어 뜻깊은 10월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인민군대에 대한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철도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철도의 물질기술적도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혁신탄생에 맞게 벌여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철도운수발전에서 중요한 몸을 차지하는 기업들마다 광장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예우를 더해 철도현대화를 떠미고나갈수 있게 둔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풍크리트침목생산장을 늘이고 나무침목의 수명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

철도성에서는 북상객화차대와 평양객화차대, 서평양기관차대를 비롯한 기관차와 화차의 수리정비기지들을 들품히 꾸리

기록하고 그에 따라 철도

반드시 끌장을 본다는 사상적 각오와 전투적인 일본새

도안의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을 펼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강원도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뛰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고한 계획에 따라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성례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

고의지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일군들은 어떤 사상관점과 일본새로 회답해야 하는가.

지난 한해 사이에 산림복구전투는 자연파의 전쟁이라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도의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을 펼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강원도 일군들의 사업 성과가 주목된다.

전투조직과 일군의 책임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이제는 옛말로 되었다.

아침파 저녁이 다르고 오늘파 밤이 다른 우리 조국의 빛찬 현실이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다면 눈부시게 비약하는 오늘날 산림복구전투에 힘하는 우리 일군들의 사업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뛰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진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 우리 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참으로 무겁다.

여기에 강원도에서 모든 산을 푸른 숲 성례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수 있게 결정적

둔 전투적인 사업기풍은 본발을 만 하다.

평강군에서는 여러 곳에 물웅덩이가 있고 물이 많아 종전같으면 염두도 넣지 않았던 5정모의 행습지를 3일동안에 개방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나무모를 키우고는 가고 하였다.

하지만 당정책판철에 뛰쳐나선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였다. 군일군들과 푸른 숲을 낮과 밤에 빠르게 철전투를 벌려 행습지의 톨들을 추이고 500여㏊의 숲으로 물웅덩이들을 매우며 수백㏊에 달하는 나루모부식토를 깊혔다. 그리하여 쓸모없다고 하던 그 땅을 기笏지게 걸었다.

통천군에는 원래 7.5정모의 모체양묘장이 있었지만 산림복구전투에 허비 보면 만족스럽지 못했다. 군의 일군들은 모체양묘장을 두배로 늘여 대량한 목표를 세우고 지역이 높은 1.5정모의 땅을 나루모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투에 군중을 충동시켰다. 하여 3일동안에 모체양묘장을 새로 구리었다.

절원, 회양, 창도, 김화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이와 같은 본격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나에게 모체양묘장들의 물질기술적도대를 톤튼히 갖추어놓았다.

세포군에서는 가을로 나루모생산에서 지장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모든 사업을 빛들이어 작전하고 근기있게 밀고나갈 때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도의 시, 군들의 나루모영양 단지생산기지마다 꾸려진 원료활용기구나 나루모영양단지성

형기, 영양단지철단기성

하나가 다 손색이 없다.

하지만 보다 주목되는 것은 나루모생산기지에 대한 전원공급체계이다. 아무리 현대화된 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필요한 시간에 나루모생산기지가 원만히 가동하도록 전기기를 보장해 주지 못하면 탄알이 없는 총을 들고 전투에 참가한 것이나 다른 없다.

도의 일군들은 시, 군들의 나루모영양단지생산기지들에서 국가전력망과 태양빛전지판, 자체의 발달전기전에 의한 전원공급체계를 세우도록 하였다. 결과로 전기기장에 문에 나루모생산

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말자체를 없애버렸다.

자기 사업을 끌끌이 책임지려는 강원도 일군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은 시, 군들의 모체양묘장들에 그 어떤 가들도 이겨낼 수 있는 판수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놓은데서 탈퇴되었다.

결과 다른 단위보다 조건이 좋거나 자체가 많아서가 아니다.

세포군에서는 가을로 나루모생산에서 지장을 막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전하여 굴포와 우물들을 더 따고 월간한 전원

공급체계에 의한 양수통력보장 대책을 세워 지난해 나루모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회양군 일군들은 자연호흡식 관수체계를 받아들여 해발 고가 수백m나 되는 곳에서 부

터 1km이상 떨어진 양묘장에 물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문제는 일군들부터가 산림복구전투는 자연파의 전쟁이라는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뛰쳐나설 때 능가가능이 있음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투현장과 일군의 위치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들풀을 험한 현실에 몸을 뚝 잡고 고집워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혁신으로 일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일군들의 자각과 역할이 중요하다.

하다면 도당위원회에서는 자연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지난해 5월 어느 날 도의 산림복구전투진행정형을 도록 하던 도당책임일군은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일부 일군들이 산림복구전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는 하지 못한 편향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봄철에 시, 군들에서 심은 나루모수가 문경에 수자로 기록되었을 때 실지 나루모한그루 한그루를 어떻게 심었고 또 사자를 얼마나 보장되었는가 하

는 세부적인 자료까지 속속들이

뛰어 다른 일군들도 한계 군식 맡고 산림복구전투로 들끓는 현실에 몸을 잡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모든 시, 군들의 산발을 터면서 산림복구현장을 빠짐없이 활용하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현실에 그대로 반영한 그 특화자료가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 회일군들에게 준 자료는 컷다.

지난해 도적으로 700여개에 달하는 숲사이나루모밭을 조성할 때에도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있다.

도에는 숲사이나루모밭을 조성해놓고 혼자서 한해에 70만 그루의 나루모를 생산하고 있는 산림감독원이 있다. 어려운 군들에 숲사이나루모밭에서 매해 10만그루 이상의 나루모를 길러내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 좋은 계기였다.

도당책임일군들은 그들의 준비를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지난해 일군들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일군들의 자각과 역할이 중요하다.

하다면 도당위원회에서는 자연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도당책임일군들은 나타난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원인은 일부 일군들이 아직까지 산림복구전투를 사무실에 앉아 아래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뒤집어놓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시, 군들에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한가지씩 막아 풀어주도록 하였다.

도당책임일군들은 그들의 준비를 찾아온 군들이 내려갔다. 성의있는

일군들이 일군들이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일군들이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서야 할 일군들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가.

그리하여 김화군, 청원군에 든든히 하고 산림복구전투장한복판에 뛰어들어 전투조직과 지원파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하신 혁사적인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리념을 다시금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대외정책적리념이다.

우리 인민은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는 현시기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초미의 문제이다. 평화는 인류공동의 님원이며 자주성을옹호하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은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새 전쟁과 학살화를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에 힘써나서고 있다. 그러나 세계제례를 꿈꾸는 자들은 여전히 힘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오늘 미국의 새 전쟁도 발행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다. 세계는 커다란 우리를 가지고 조선반도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자주, 평화수호의 전선에서 서 있는 우리 인민은 국제적련대성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하고 있다.

평화의 리념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속에서 강성국가건설을 전쟁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평화가 더없이 귀중하다. 우리 공화국이 국방력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

온 환경에서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차게 펴밀어나가기 위해서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해에 선군정치의 위력, 종대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펴시하였다. 단일 우리 공화국이 전쟁역제력을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적대세력에 의해 제 2의 조선전쟁이 떠지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었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로 적들이 기여든다 해도 무자비하게 죽쳐버릴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적리념은 평화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넘원을 구현하고 있는 숭고한 리념이며 전보적인 민들을 평화옹호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고무적기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반제련대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간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존엄을 해치려 하면서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 해도 라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며 그에 용당한 반격을 가한다.

오늘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의 비위를 조추거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공정정대하게 처신한다.

최근년 대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을 반파공국제재식 등을 밀灭적으로 일리었으나 우리는 추후의 동도도 없이 원칙적이고 혁명적인 힘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킨다.

그 누구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에게 함부로 이해라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반파공국공세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고수밥전시키며 반제자주력량과

지 않다.

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시 자주정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적인 사건들이 떤이어 이룩되고 우리 공화국의 힘위가 비상히 높아진것도 우리의 자주정치가 안이운 결실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힘장이다.

친선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나라와 민족들은 친선관계를 맺고 밤전시켜 아름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배개나라와 민족들은 자주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친선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발전할것을 바라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에서 남을 얹누르고 지배하려는 폐관주의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면서 큰 나라, 밤전시킬 나라에 아부증종하는 사대주의의 허용되며 나나를사람, 민족들을 사이에 불평등과 불화가 생기고 참다운 친선과 협조관계가 이루어질수 없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 나라들이 차지하고 남았던 지역에 있는 국제관계는 곧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초래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차지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옹호하는 사대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밤전시켜나가는 힘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비록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판계에 있던